

오전(1부, 노량진) 6시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2월 15일 (제 1345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양다리 걸치지 말라

자고로 양다리 걸친 사람치고 가랑이 안 찢어진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연애도 양다리 걸치면 이쪽저쪽에서 다 채이더라. 이쪽에 정보 흘리고, 저쪽에 정보 흘리는 놈은 결국 쇠고랑 차더라.

그렇다면 신앙의 양다리는?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5~16).

신앙의 양다리는 지혜가 아니라 불신앙이다. 이것도 불들고, 저것도 불들면 안전하다 하겠지만, 신앙에서 양다리는 보험이 아니라 배신이다. 하나님도 불들고 세상도 불들고, 기도는 하지만 계산은 세상이 기준이고, 주일은 지키지만 결정은 세상 논리대로 하는 양다리는 하나님께 징계감이다.

한 집에 두 남편이,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을 수 없듯, 해도 달도 둘이 아니듯, 신앙 안의 주인은 딱 한 분 계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 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이라”(마6:24) 말씀하신다.

곧 설이다. 설이면 갈등하고 번민하는 성도들이 많다. 제사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자구책을 세운다. ‘돈만 드린다, 음식은 장만 하되 먹지는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절은 하지만, 마음만은 지킨다’ 등등. 그러나 이것도 양다리 걸친 거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사양하시고 거절하신다.

다니엘의 신앙처럼 일편단심이어야 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친다.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촉구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으면 그를 죽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으면 그를 죽을찌니라”(왕상18:21).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결단이다.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단하라.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결단하라.

“양다리 걸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1 명령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요 토대가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제사 문제로 너무나 무참한 핍박과 순교가 이어지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우리 고유의 미풍 양속이라는 취지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에 대한 논란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왜? 죽인다는 위협이 두려움과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태워버리려 했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

때 이 제사 문제로 집에서 내쫓기며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기에 더욱 강력한 자세로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 하셔 왔고, 지금 역시 조금의 편차도 없이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제사는 부모를 섬기려 하는 건데, 부모는 신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

우리에게 주신 참된 꿈을 위하여 타협을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을 본받아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크리스천의 본분을 다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목사님은 항상 ‘제사 지내지 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제사를 거부하다 예전에는 죽임을 당했고, 오늘날에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집에서 내쫓기는 일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며 이 길을,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 신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신앙의 양다리 걸치지 말라!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자가 돼라

봉우 이초석 목사

하나님은 분명한 자를 축복하셨다

고의 신앙이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되었다 하여도, 실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처절한 고문을 당하고, 무참히 죽어 나가는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과 신앙의 표준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타협을 그저 비난만 하고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한 믿음의 선친들이 칭송과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제사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아주 선명하게 제사 거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고전10:20~22).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라 생각하면 할 테면 해보라’는 아주 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요즘 몇몇 교회들이 포교를 위한답시며 기독교 제사법 등, 희한한 말로 구슬리며 타협하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칙, 곧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 풍조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는 찬송가 542장(새찬송 490장)의 시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큐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0~12)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에 타협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내 어머니를 구원하고, 내 동생, 아들, 조카들이 목사가 되는 일 또한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우리 교단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본받아 신앙에 그 어떠한 타협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 날짜 : 3월 25일(수)~4월 3일(금)

구독신청 02) 533-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20)

## 나는 41년간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모세는 40년간 율법을 전했습니다. 저는 41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옳은지를 가르쳤고, 그래서 그로 인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었다면,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의 자리에 세우지만, 복음은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부릅니다.

복음(福音)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4:18).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것이, 병든 자가 병에서 놓임을 받는 것이, 괴로운 자가 행복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복음, 곧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 성령충만은 영적 무기의 총집결이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세례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12:49).

성령의 불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행 1:8).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라”(행10:38). 사복음서에 기록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을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임합니다(행2:38).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내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같은 권능이 나타

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마 16:17~18). 만 원짜리 지폐를 아이가 내건, 어른이 내건 그 가치가 동일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집사들이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들과 전쟁 중입니다(엡6:12). 전쟁 중에는 무기가 승패의 관건이지요. 그것들은 미사일이나 핵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하는데, 성령이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은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지뢰탐지기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지뢰를 잘못 밟으면 지뢰가 터져서 순간 죽을 수 있고, 신체 일부분이 떨

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뢰탐지기만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

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1:47). 주님 말씀에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만나 봤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하고 물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요1:48).

그 예수님은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며 기도할 때 보셨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보셨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보셨고, 제가 펍박과 환난 중에도 목이 터져라 복음을 외쳤을 때 보셨습니다. 그래서 눈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을 걸어 올 수 있었습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다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이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시94:9).

### 성령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자유가 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환증되어야 자식만이 누리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우리, 늘 성령충만하여 내 삶을 기름지게 하고, 또 이 성령을 힘입어 나가 복음을 전파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행1:8). 저는 41년 복음을 전했듯이 남은 생애도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보고,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로  
하  
는  
것  
입  
니  
다.  
저는  
어  
느  
나  
라  
에  
가  
들  
지,  
누  
구  
앞  
에  
서  
든  
지  
당

당히 예수님처럼, “나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려 왔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시인하게 하고, 회개케 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여 성령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끝입니다. 그다음은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니 성령이 역사하사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어리가 말하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자는 의사면허증을 받은 자입니다. 진료과목과 무관한 종합 병원장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은 예수님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것은 최첨단 무기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전쟁 중인 걸 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

## 보안등 아래 깨밭엔!

기독원 입구에는 깨밭이 있다. 놀랍게도 길가에 심어놓은 깨잎들이 호박잎만큼이나 커졌다. 특별한 비료라도 주는 것일까? 사실 원인은 보안등 때문이었다. 낮엔 태양 빛이, 밤엔 환하게 밝힌 보안등 불빛 때문에 24시간 어둠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웬걸, 잎사귀는 그렇게 큰데 정작 깨는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생각이 깊어졌다.

깨는 대표적인 단일식물(短日植物)이다. 때문에 밤이 충분히 길어져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식물의 생장에 빛이 중요 하지만, 빛을 많이 받았다고 열매가 풍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는 어둠, 기다림, 멈춤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어디 식물만 그러할까? 인생도 그러하다!

우리 모두는 '구름 없는 아침 햇살과 같은 축복'을 바라지만, 정작 '구름 없는 아침 햇살'만 주어지는 인생이라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단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인정하자.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이라 하여 유명한 주목(朱木)이란 나무가 있다. 천 년 이상을 살아가는 생명력도 충분히 경이롭지만, 베어진 뒤에도 능히 수백 년 동안 끄떡없다. 잘 썩지 않고 목질이 치밀하여 부패와 해충에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

궐과 주요 건축물의 주재료로 사용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죽어 천 년'이라는 말이 붙었다.

천 년을 사는 주목(朱木)을 보고 많이들 경이롭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천 년을 벼텨낸 주목을 기억해야 한다! 차디찬 눈발과 거센 폭풍 속에서도 오롯이 그 한 자리를 벼텨낸 것이니 천 년을 사는 거다! 시편 27장 14절에서 다윗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찌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랄찌어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캬비'는 끈을 꼬아 단단히 묶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때문에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신뢰에 뿌리를 둔 기대감을 의미한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오랜 기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굴, 광야, 이방 땅을 전전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처럼 절망보다 믿음의 확신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다.

인생의 밤이 깊어지면 때론 고달파 몸부림치기도 한다. 하지만 밤이 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보안등 아래 깨밭엔 깨가 열리지 않는다!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당신, 반드시 내일의 태양은 뜬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멋진 작품을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자!

신현명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 시계 속의 시간과 마음속의 시간

새해가 되었다는 말은 달력의 숫자가 바뀌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크로노스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또 한 해를 맞이했지만, 이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마음속의 시간, 곧 카이로스에 달려 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챌 수 있는 시간으로, 365일이라는 숫자, 24시간이 반복되는 하루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정하며 일정을 관리한다. 크로노스는 반복과 규칙성을 통해 삶을 안정시키지만, 동시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유한성과 한계를 깨닫게 한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시계로 챌 수 없는 마음속의 시간, 주관적인 시간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순간이 내 인생과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가 중요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이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은혜가 담긴 순간이다. 즉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느껴지는 결정적 순간으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용서를 결단하는 순간,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 모두 카이로스다. 카이로스는 인간의 내적 경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나는 자리로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신앙인은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에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일 수 있다'는 감각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엡 5:16)는 것은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기회를 불들라는 초대이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면 같은 시간, 같은 일정이라도 그 안에 '왜'라는 질문을 담을 때 시간은 전혀 다른 깊이를 지닌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은 성찰을 통해 지나간 크로노스를 다시 감사와 깨달음의 시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간을 바라볼 때, 실패와 고난의 순간조차 준비와 성장의 기회가 된다.

2026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크로노스의 눈으로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나이를 더할 뿐이나 카이로스의 눈으로 보면 새해는 새로운 만남과 깨달음, 새로운 순종과 사랑으로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를 쳐 있지 않을까?

이정금 전도사

## 내가 만들어진 모습대로

얼마 전에 10km 마라톤 경주에 나갔습니다. 완주하고 완주메달을 받았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당일에 현장에 가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달리기 를 잘해서 빠르게 달려나가는 사람들, 저처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뛰는 사람, 또 저보다 이전에 포기하고 멈춰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3km 정도 달렸을 때 이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자살이라고 배웠기에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5km 반환점을 지나고, 마침내 10km를 돌파했습니다.

겨우 10km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남들을 신경 쓰고 달렸다면, 그들을 따라가느라 오버페이스를 했더라면 결국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혹은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그 만들까?' 했더라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완주의 기쁨을 생각하며 남들을 보지 않고 뛰었고, 결국 완주를 해냈습니다.

남들을 바라보며 남들 따라가려고 하면 내 인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남들이 잘난 것 같고, 남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찾고, 나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릴 그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롬12:3~8).

윤예녹 전도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 맞으세요!



:: 생명의 말씀 ::

## 신앙은 개념이다

- 대학에 들어간 큰아들이 중학교 동생들을 앉혀놓고 공부(특히 수학)에 대해 조언하는 걸 들었다. 혼난했던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기에 매우 진솔하게 들렸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보다는 질적인 공부에 우선하라고 일침을 주고 있었다. 학원에서 배우는 많은 양의 문제들을 소화하려면, 정확하고 견고한 기초 개념 위에 토대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부실하고 부정확한 개념 위에 쌓는 모래성은 무너질 수 있다. 는 뜻이었다.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감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이다. 같은 용어로 공부를 하지만 개념 정리가 불확실할 때, 과정은 풍성한 듯해도 결국 오답이 되듯이 말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강의 잘하는 일타 강사들 중에서도 개념 정리에 탁월한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애청하고 있었다.
- 보통 뉴스 보도에서 수능 만점자들이 말하길,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 개념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물론 만점으로 향하는 공부의 방법론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으나, 결국 정답으로 가는 정확한 개념(공식)은(?) 오직 한 길뿐이다. 그 개념이 아니고서는 오답처리 된다.
-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개념 정립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과정과 무관히 마지막엔 오답처리 될 수도 있다. 개념을 잘못 잡아 버림받은 반면교사가 성경에도 많다. 마음의 할례로 개념변경이 되었는데도, 육체의 할례에 여전히 집착하는가? 성경의 예수가 아니고, 다른 개념의 예수로 구원이 가능한가? 하나님께 불들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내 뜻대로 연줄을 끊고 날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모두 개념오류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를 믿지만, 천태만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적 소통은 힘들어진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옮다 하는 왜곡된 개념들을 받아들이니 '종교통합'운동 같은 것들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거다.
- 교회, 신앙, 목회자, 사역의 본질적인 개념은 무엇인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목회의 초기념들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송직화 목사

# 주의 종이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1997년 2월 15일에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한 박종관 장로의 아내 김선희입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봉사하던 1996년, '새해 목표를 설정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올해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의 배필이면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알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고 싶어 기도하는 중에, '해외집회가 있으니 결혼식을 한 달 앞으로 당겨서 하라' 하셔서, 원래 3월 15일에 날을 잡았으나 2월 15일로 한 달 앞당겨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에 강원도 대관령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원래대로 3월에 했다면 강원도 시내 식구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지 않던 가족들도 '날짜를 변경 안 했으면 우린 결혼식에 못 갔을 거야.' 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큰아이를 낳고 어느 날, 제가 이명이 와서 예배 후에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배에 손을 얹으시고

한참을 기도해주셨어요. 맘속으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귀에 이상이 있는 건데 왜 그러실까? 내가 분명히 귀가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고, 목사님께서는 그걸 이미 아시고 기도해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던 터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지금 주

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남편은 평택 K자동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 S자동차 시절,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할 때 목사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네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해고당할 일도, 회사가 잘 못되는 일도 절대 없을 거'라고 축복해주셨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후로 K자동차로 업그레이드되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정년퇴임을 하는 날까지 회사가 잘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아침 일찍 출근한 남편이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오른쪽에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진 것도 아니고, 신속하게 병원에 와서 정밀 다행이라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뇌경색이니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치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 중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더라도 총회장 목사님께 기도 받고 들어가야 될 거 같아서 아는 분을 통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10분도 안 돼 총회장 목사님의 전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네 부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시옵소서. 뇌에 이상이 없게 하시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시고, 기관 세포 마디마다를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의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으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만인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남편은 "아멘! 아멘!" 하며 목사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애타게 기도해주신 목사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깐 쉬다고 생각하라 하시며 위로해주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2시에 중환자실로 남편을 들여보내고, 그 앞에서 하염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해주셨으니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주의 종이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아들과 친정엄마와 같이 기도에 갔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사내 심사를 통족하시는 하나님께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내일 입원실로 올라가 치료하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이후로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어느 날엔 아침과 저녁에도 전화하셔서 기도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해주신 목사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지금도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에 치료가 잘되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후유증 없이 퇴원했고, 이제는 내 육체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기쁨지게 하는 자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성가대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행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혼자 살게 하실 분이 아니야.'하신 목사님의 음성이 귓전을 울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김선희 집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 항상 기뻐하는 한 해를 소망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권면 가운데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웃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기쁨이 인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려주는 약속입니다.

현대 의학 역시 기쁨과 감사, 웃음이 엔돌핀과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하여 뇌의 염증을 낮추고 신경세포의 연결을 보호하며,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의 균형을 회복시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이로 인해 혈압과 심박이 안정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 감염과 만성 염증

성 질환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지속적인 기쁨은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 기능을 보호하여 기억력 저하를 낮추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도파민

회로의 안정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보호 인자로 작용합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은 혈관 수축과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뇌졸증과 심근 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에 기여하고, 불안과 우울이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어 만성 피로, 두통, 소화기 기능 장애, 과민성 장 증후군과 같은 기능성 질환의 악순환도 끊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기쁨은 오장 가운데 심(心)에 속하는 중요한 감정으로 설명됩니다. 적절한 기쁨은 심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혈액을 부드럽게 하여 정신을 안정시키며, 얼굴빛과 말소리를 밝게 합니다. 기쁨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심신, 곧 마음과 정신이 편안해지고 기혈 순환이 원활해져 두뇌로의 혈류가 안정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神)이 안정되면 병이 들지 않는다."는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억지로 웃는 표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태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몸을 움직이고 숨을 고르며 찬송을 흥얼거리는 작

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이유를 찾는 생각의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일상의 공부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통해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내가 여전히 쓰임 받고 있다'는 의미를 발견할 때 기쁨은 더욱 깊어집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수고, 완벽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는 기도와 순종 속에서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기쁨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 즐거운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애씀이라기 보다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내는 순종이며,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시32:11).

Dr. 설재현 집사

## 세월의 가르침

봄처녀 오는 소리에

동장군 나팔 불고

친구들 일어나 눈 녹이며 춤추니

냇물이 강물과 춤추며

바다로 손잡고 멋지게 가누나

내 머리에 내린 흰 눈은

언제나 녹아내릴까

더욱 깊어만 가누나

아~~ 지난 세월

봄여름 헛되이 보냈음

한탄한들 무엇하랴

이제와 후회하니

손발도 슬퍼하누나

창조의 법칙을 누가 막으리오~

영혼의 월동준비나 잘하고

천국의 봄을 맞으련다

2026년 2월 7일 내 나이 77세에

봉우 이초석 목사